



2018 뉴욕 연방 예비 선거 주지사 후보 설문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민주당

선거일: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9시

공공의료: Q) 뉴욕 주민들을 위한 보편적인 건강보험 체계를 확립할 '뉴욕보건법 (New York Health Act)'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쿠오모 주지사는 저렴한 양질의 건강보험의 이용은 사치가 아니라 인권이라고 믿는다. 쿠오모 주지사는 보편적인 건강보험을 지지하며 모든 건강보험 안에 대한 연방 메디케어가 가장 경제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믿는다.

쿠오모 주지사의 지도력하에 뉴욕은 4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등록한 전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강 보험 교환 프로그램 중 하나를 수립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 보험을 향한 공격 행위에 맞서고 아직 미보험자로 남아있는 5%의 뉴욕 주민에게 공공의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민 Q)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 명령과 법원 결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류 미비 이민자의 권리, 안전 및 지위에 관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

A) 쿠오모 주지사는 국경에서 분리된 수천 명의 이민자 자녀와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 한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한 이민단속국이 무모하고 위헌적인 이민 단속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서한도 발표했다.

더 나아가 쿠오모 주지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민자들에게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자유 보호 프로젝트 (Liberty Defense Project)'와 영어 교실, 기업이 트레이닝과 시민권 신청 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민자 지원국 (Office for New Americans)을 운용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주정부 기관들이 무료 통역과 번역을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도 공표했다.

교육 Q) 특목고 입학에 위한 시험인 SHSAT를 폐지하려는 방침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쿠오모 주지사는 SHSAT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 아시아나메리칸 커뮤니티의 이해관계자들을 적극 접촉했다. 특히 주정부 고위 관리들은 학부모, 권익 옹호가와 교육기관 관계자들을 면담해 왔으며 그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안과 다른 교육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또 한 번의 회의가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토론들은 쿠오모 주지사가 아시아나메리칸 커뮤니티의 생각과 우려를 반영하여 교육 현안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입장을 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투표 제도 개혁: Q) 뉴욕주는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주 중의 하나이다. 뉴욕주의 현행 투표법에 적용하고 투표율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실행하겠는가?

A) 쿠오모 주지사는 투표 권리를 확대하고 조기 투표 실시, 자동 유권자 등록 실행 및 투표 당일 유권자 등록 허용을 통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입법안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를 제안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시도할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가석방 중인 개인의 투표권을 회복하고 모든 주정부 기관이 유권자 등록 양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주지사는 2012년에 차량국 (DMV) 온라인 유권자 등록 사이트를 만들어 45만 명 이상의 처음으로 투표하는 유권자들을 포함한 백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등록했다.

인구 조사: Q) 2020년 인구 조사에서 뉴욕 주민들이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제기할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 공정하고 정확한 인구 조사 집계를 보장하기 위한 주지사 사무실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쿠오모 주지사는 인구 조사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정부와 단체들 -모든 뉴욕 주민이 집계되도록 확인하는-과 협력하여 뉴욕주가 필수 연방 예산을 공정하게 분배 받고 워싱턴 디시에서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받도록 종합적인 인구 조사 대응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미 인구조사국은 1950 년 이래 처음으로 시민권 보유 여부에 관한 질문을 추가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정확한 집계를 하기 위한 과학에 기반한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 뉴욕주는 공식 서한과 언급을 통하여 시민권 질문에 반대해 왔고 이 결정을 철회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몇개 주들과 함께 연방 정부를 상대로 법률 소송을 제기했다.



2018 뉴욕 연방 예비 선거 주지사 후보 설문

신시아 닉슨

민주당

선거일: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9시

공공의료: Q) 뉴욕 주민들을 위한 보편적인 건강보험 체계를 확립할 '뉴욕보건법 (New York Health Act)'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A) 나는 '뉴욕보건법'을 지지하며 뉴욕주에 모든 주민이 단일한 체계로 의료 혜택을 받는 제도인 'Single-player' 시스템을 확립하겠다.

이민: Q)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 명령과 법원 결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류 미비 이민자의 권리, 안전 및 지위에 관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

A) 취임 첫날에 나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뉴욕 주민에게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행정 명령을 공표하겠다. 나는 뉴욕주를 진정한 피난처 주로 만들 '자유 법안 (Liberty Act)'의 통과를 위해 싸우겠다. 이 법안은 이민 주하원을 통과했으나 쿠오모의 공화당 상원이 사장시켰다. 쿠오모와 다르게 나는 또한 드림 액트의 통과를 우선순위 현안으로 다루겠다.

쿠오모는 이민단속국 (ICE)의 확장을 계속 지원하며 이민단속국에 장소를 대여한 회사와 임대주들로부터 받은 80만 달러가 넘는 선거 기부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나는 이민단속국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Q) 특목고 입학에 위한 시험인 SHSAT를 폐지하려는 방침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A) 나는 특목고의 분리 현상을 종결하려는 목적으로 찰스 베론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 베론 주하원의원이 제안한 입법 안은 특목고 입학에 위한 단일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급 성적과 모든 학생들이 응시하며 예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시험들과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법안에 따라 3년 동안 실행하면 뉴욕시 모든 중학교의 상위 5%~7%의 학생들이 특목고에 입학하고 흑인 및 중남미계 학생들의 입학률 45%까지 증가시킬 것이다

투표 제도 개혁: Q) 뉴욕주는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주 중의 하나이다. 뉴욕주의 현행 투표법에 적용하고 투표율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실행하겠는가?

A) 나는 조기 투표, 자동 유권자 등록과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 허용을 지지한다. 나는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접근 가능한 투표소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원 확보를 지지한다. 장애인도 일반 이웃들처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현재 6명 중 1명의 유권자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단 4개 중 1개의 투표소만이 그들이 입장할 수 있는 상태다.

인구 조사: Q) 2020년 인구 조사에서 뉴욕 주민들이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제기할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 공정하고 정확한 인구 조사 집계를 보장하기 위한 주지사 사무실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뉴욕주의 모든 시민 사회를 결집하여 2020년 인구조사에 제안된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 포함을 거부하도록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주지사의 책임이다. - 항의, 로비, 소송과 우리의 의원들에게 전화 걸기 등. 이것은 이민자와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행위다.

주지사로서 나는 공정한 인구 조사 집계 보장도 직접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 이상적으로는 이민자 커뮤니티와 유색인 커뮤니티와 깊은 유대를 맺고 있는 커뮤니티 그룹들에게 상당 수준의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 나는 또한 2019년과 2020년에 특별히 인구 조사에 관련 활동에 집중할 팀을 만들 것이다. 나는 또한 주지사로서 공정한 인구 조사 집계 보장에 전념할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